

물이 병들면 생명위협...깨끗하게 아껴써야

2013 세계 물의 해- 불교와 물

2013년은 유엔이 정한 '세계 물의 해'다. 물은 단순한 자원이나 자연의 개념을 넘어 생명의 근원이라는 측면에서 인류가 깊게 고민해야 하는 것 중의 하나다. 유엔이 나선 만큼 오늘날 물의 문제는 가볍지 않다. 물의 해를 맞아 물에 대해 생각해 본다.

발우공양이 끝났다. 그런데 텀플스테이 참가자들 중 일부는 곤혹스러운 표정을 짓고 있다. 발우를 씻은 물을 마셔야 하기 때문이다. 텀플스테이 현장에서 종종 볼 수 있는 풍경이다. 불가에서는 발우공양을 하고 나면 발우를 씻게 되는데 그 발우를 씻어낸 물을 청정수라고 한다. 그 청정수는 모아서 마당 한 쪽에 마련된 아귀발우에 버리게 되어 있는데, 오늘은 그 청정수에 고춧가루가 하나 뚝 떨어졌기 때문에 아귀발우에 버릴 수가 없는 것이고, 그래서 그 물을 당사자들이 마셔야 하는 것이다. 아귀발우에 버린 물은 아귀가 마실 물인데 아귀는 몸집은 짐채만 한데 목구멍은 바늘귀처럼 좁아서 물밖에 먹을 수 없고 그 물에 고춧가루

하나라도 들어가면 목에 걸려 물을 마실 수 없다. 목에 걸린 고춧가루 때문에 아귀는 목구멍에서 불이 난다고 한다. 짐채만한 몸을 채우기 위해 쉬지 않고 물을 마셔야 하는 아귀에게 깨끗한 물은 정말 소중한 것이다.

깨달음을 얻지 못한 중생이 죄를 많이 짓고 윤회전생(輪廻轉生)하게 되는 6가지 세계가 있는데, 그 중에 괴로운 곳인 삼악도(三惡道)는 지옥도(地獄道), 그 다음이 아귀도(餓鬼道), 축생도(畜生道)이며, 그 반대인 삼선도(三善道)는 아수라도(阿修羅道), 인간도(人間道), 천상도(天上道)의 여섯 갈래다. 이것을 육도라고 하며 여기에 삼계인 욕계, 색계, 무색계가 더하여 삼계육도라고 한다. 생전에 탐욕이 많고 시기가 많으면 다음 생애 아귀도에 나는데 아귀로 살아야 하는 것을 말한다. '굶주린 귀신'이라는 뜻의 아귀는 물밖에 먹을 수 없는 괴로운 과보를 받았다. 이에 아귀를 불쌍히 여긴 불가에서 아귀를 위해 청정수를 모아 아귀발우에 버리게 시작한 것이다. 단지 아귀발우에 버리는 물이 아니라도 물 밖에 먹을 수 없는 아귀를 생각한다면 이 세상의 물은 모두 깨끗해야 할 것이다. 해서 불가에



지구촌공생회는 2004년부터 캄보디아를 비롯한 물이 부족한 오지에 우물파주기 사업을 진행해 오고 있다.

서는 버리는 물도 함부로 버릴 수 없는 이유를 붙인 것이다.

UN이 '세계 물의 해'를 정한 뜻

2013년 새해가 밝았다. 유엔(UN·국제연합)은 2013년을 '세계 물의 해'로 정했다. 인류에게 물에 대해 심각하게 묻는 것이다. '물'에 심각한 문제가 생겼기 때문이다. 물이 부족한 곳이 늘어나고, 더러운 물이 늘어나는 것이 가장 큰 고민이다. 유엔이 정했던 아님든 물은 인류를 포함한 모든 생명의 근원이다. 소중한 것을 넘어 없어서는 안 되는 것이다. 없어서는 안 되는 것이 부족해지고 있고, 더러워지면 안 되는

생명의 근원 '물'

부족하고 오염 심각해져
한국불교, 물 부족 국가에
우물파주기 '물사랑' 전개

것이 더러워지고 있기 때문에 인류가 인류에게 묻는 것이다.

국제기구행동연구소(PAI)는 한국을 포함해 리비아·모로코·이집트·오만·키프로스·남아프리카공화국·폴란드·벨기에·아이티 등을 물이 부족한 국가로 분류했고, 지부티·쿠웨이트·몰타·바레인·바베이도스·싱가포르 등 19개국을 물기근 국가로 분류했다.

이 연구소의 분석 자료에 따르면, 한국의 경우 1993년 1인당 물 사용 가능량이 1470㎥로 물 부족국가에 해당하고, 갈수록 물사정이 어려워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물이 부족해지는 이유는 여러 보고서를 통해 알려져 있지만 종합하면 물 자체가 부족해진 것이 아니라 인류가 분별없이 쓰기 때문인 것으로 정리된다. 제대로 된(인류에게 필요한) 물이 만들어지기 전에 물을 너무 많이 소비했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깊은 지하수가 되기까지 약 50년의 시간이 필요한데, 그 물이 만들어지기 전에



아프리카 케냐의 원주민이 강에서 물을 담고 있다. 생명의 근원인 물이 지하수가 되기까지는 50년이 걸린다. 물을 아껴써야 하는 이유다.

이미 많은 물을 써버렸다는 것이다.

물의 부족 현상과 함께 물의 오염 또한 심각한 문제다. 2009년 발표된 유엔의 미래보고서는 지구의 물 부족과 함께 해양의 오염을 걱정했다. 해양오염 전문가 그룹은 해양오염의 44%는 육지의 오염물질 때문이고, 33%는 대기에서 유래했고, 12%는 선박에서 투기하거나 흘린 것이고, 100%는 고의로 버린 쓰레기에 의한 것이고, 1%는 근해의 광물채광 때문이라고 평가했다.

아귀의 물을 다시 생각해 보면 물은 우리가 버리고 우리가 마셔야 하는 것이다. 경전 속의 아귀는 다름 아닌 우리다. 우리가 잘 버리지 않으면 우리는 물을 마실 수 없는 것이다. 깨끗한 물을 버리는 일이 깨끗한 물을 마시는 일의 시작이고 보면 마시는 일이 먼저가 아니고 버리는 일이 먼저가 아닐까.

물 없는 곳에 물을

불가에서는 아귀를 위해 버리는 물도 깨끗이 해서 버렸다. 쉬지 않고 물을 마셔야 하는 아귀는 늘 물이 부족하기 때문에 버리는 물까지도 함부로 버릴 수 없었었다. 앞서 말했듯 우리의 모습도 아귀의 모습과 다르지 않다. 늘 마셔야 하고 깨끗해야 한다.

지구촌 곳곳엔 더럽고 깨끗함을 떠나 물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곳이 많다. 아귀를 위해 청정수를 준비했던 불가의 마음이 필요할 곳이다. 지구촌 곳곳에 '아귀발우'가 필요해진 것이다. 그 '아귀발우'는 우물 파주기다. 불교계 대표적인 국제구호단체인 JTS, 지구촌공생회 등은 단체들은 2000년 대 초부터 동남아와 아프리카 등 물이 부족한 곳에 '우물파주기' 운동을 전개해 오고 있다. 우리도 이미 물 부족 국가로 분류되어 있지만 우리보다 더 물이 절실한 곳을 찾아 부처님 마음을 전하고 있다.

4대가 모여 이루어진 연가합의 형태임을 부처님오리날 전에 알아내셨고 우리에게 알려주셨다. 지구화풍에서 왔고, 지구화풍으로 돌아가는 것이 우리의 육신이다. 우리 몸의 일부는 물이 절대적이다. 우리는 물에서 왔고 물로 돌아가야 한다. 우리는 물이 돌아간 곳에서 다시 시작한다. 부처님의 가르침이 그랬다. 아귀가 처음부터 아귀가 아니었다 끊임없이 우리는 돌아가고 또 그곳에서 시작된다. 그렇게 본다면 우리가 돌아가고 시작되어야 할 물의 자리가 아귀의 물처럼 깨끗해야 함은 두 말할 필요가 없다. 또한 탐욕의 과보로 짐채만 한 몸과 바늘귀만 한 목구멍을 받은 아귀처럼 우리 인류의 탐욕이 계속된다면 우리도 역시 짐채만 한 몸을 채우기 위해 늘 목마름으로 살아야 할 것이다. 물은 지구의 핏줄이자 인류의 핏줄이다. 2013년 물의 해를 맞아 모든 불자들이 함께 물의 소중함을 살피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란다.

우리 몸은 지구화풍

우리 인간의 육신은 지구화풍(地水火風)

박재환 기자 wanhollo@hyunbul.com



佛陀釋迦世尊에서 傳法하신 修行法
西域에서 28代 海東에서 5代 33대 祖師가 설하신 修行正路

**正法眼藏 三處傳心 하신
釋迦世尊의 修行法이 여기에 담겨 있다!**

해 동의 6祖 慧能大師의 入滅(BC 713년)以後
般若에 묻혀버린 正法이 1,300餘年만에 햇빛을 보게된

**佛陀의 修行路 “禪林의 바른길”이
여기에 고구정녕 說해져 있다.**

판매처: 불서총판운주사 ☎(02) 3672-7181~5 / 부산영광도서 ☎(051) 816-9500



■ 편집자 : 각암 성원
■ 상권 401쪽 / 하권 380쪽
■ 가격 : 상권 15,000원 / 하권 15,000원
■ 발행처 : 동진기획 · 붓다쇼핑
부산시 기장군 철마상동로 54
☎(051)515-8888 (대)
출판등록 제11-67호

<p>한지인촌대길(大/2도) 판매가 12,000원 大 (10×43cm) 10,000원 2도 (7×30cm) ·포 장 : 100매 비닐포장</p>	<p>경면삼매삼재부 판매가 6,000원 ·포 장 : 100매 비닐포장 ·크 기 : 10×15cm / 9×14cm</p>	<p>경면삼재부 판매가 6,000원(100매) ·크 기 : 9×20cm ·포 장 : 100매 비닐포장</p>
<p>삼매 삼재품이 판매가 800원(200개 이상) 판매가 1,000원 ·포 장 : 봉투 삽입</p>	<p>경면한지 불설삼재품이 판매가 1,000원(200개 이상) 판매가 1,200원 ·포 장 : 봉투 삽입</p>	<p>한지 삼재품이 판매가 700원(200개 이상) 판매가 900원 ·포 장 : 봉투 삽입</p>
<p>금강경탑다라니 판매가 180원(600개 이상) 판매가 250원 ·포 장 : 봉투 삽입</p>	<p>[인견한지]금강경탑다라니 판매가 400원(450개 이상) 판매가 600원 ·포 장 : 봉투 삽입</p>	<p>신년맞이기도부 판매가 800원(200개 이상) 판매가 1000원 ·포 장 : 봉투 삽입</p>

동진기획 · 붓다쇼핑 ☎(051) 515-8888 www.buddhashopping.com 부산광역시 기장군 철마면 송정리 364-2 TEL.(051)515-2988, 555-1087, 508-9377~8 FAX.(051)508-0101 인터넷전화. 070-7425-0518 H.P 011-554-2988, 011-879-0889

※동진기획 붓다쇼핑에는 100여종의 서적, 900여종의 용품이 있습니다. ※불교용품카드라이 필요하신 분은 전화로 주소를 알려주시면 보내드립니다. **[불교달력,서적,사경지,연등,염주,향,양초,다포,4.8용품,백중용품]**

세계 최초 수련 전용방석

수련문화 활성화를 위한 기반은 품격이 다릅니다


■ VIP형 49,000원 ⇨ 44,000원 [가로 45cm×세로 32cm×높이(뒷면) 8cm]
■ 고급형 39,000원 ⇨ 35,000원 [가로 45cm×세로 32cm×높이(뒷면) 6cm]

기상

※ 제품의 특징 ※

인체공학적 설계로 신체의 좌·우 균형을 빠르게 유지하며, 척추와 허리가 무리없이 바로고 자연스럽게 펴집니다. 보관과 이동이 용이하며, 어느 곳에서도 쉽게 수련 할 수 있습니다.

평상시에 사용하여도 척추와 허리를 보호하고 바른 자세의 습관을 갖는 효과를 줍니다. 고급 외피를 사용하여 물이 묻어도 스며들지 않습니다. VIP형은 하단부분은 최고급 폴리우레탄으로 균형을 잡았으며, 상단은 신소재 최고급 메모리폼을 내입하여 자연스럽게 자세를 더욱더 안정시켜 줍니다.



주문은 연불상!
02)2004-8216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